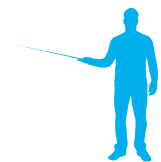


08. 수술 후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?



수술을 받고 상처가 아물면 그 이후에는 병원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술 후 또는 보조 항암치료 후에도 추적 진료는 필요합니다.

수술 후 추적관찰

대장암은 수술 후 재발할 확률이 병기에 따라 다르지만, 대개 수술 후 약 2년 내에 가장 재발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 기간은 자주 검진을 받고, 만 5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2-3년간은 3-6개월 간격으로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추적관찰을 하게 됩니다. 물론 만 5년이 지나서도 드물게는 재발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수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건강검진 개념의 매년 정기검진을 받도록 권합니다.

추적관찰 및 검사 목적

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재발 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미리 재발을 발견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대장용종과 같은 암의 전구 병변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암의 발생을 막는데 있습니다.

검사 방법

검진 방법은 수술 전 검진과 유사합니다. 즉, 신체진찰과 더불어 암표지자 검사, 컴퓨터단층촬영(복부 및 흉부), PET-CT 등 영상 진단 및 대장내시경검사 등이 있습니다.

암의 재발시 항상 통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이러한 통증이 지속적이고 한곳에 국한되며 점점 증가되는 경우에는 암 재발과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체 진찰을 통해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

암표지자 검사의 경우 수술 전에 이상소견을 보였던 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이었던 환자에서도 재발에 대한 빠른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이상소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환자에 따라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대장암 재발의 발견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종의 치료를 통한 대장암의 예방에도 연관성을 가지므로 주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.

최근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, 대장암의 재발은 대장 안에 보다 간, 폐, 임파선 등 대장 밖에 재발하므로 복부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은 필수적입니다.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시행하는 방사선 촬영은 방사선의 피해에 비해 재발의 조기 발견으로 얻는 이점이 많으므로 주기적 촬영이 필요합니다. 드물게는 뼈전이나 뇌전이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골 스캔이나 뇌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기도 합니다.

